

기획조사 05-014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06. 3

해외조사팀

목 차

I.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	1
1. 중남미 좌파정권 현황 및 특징.....	1
2. 중남미 좌파정권 확대 배경.....	3
II 좌파정권의 경제정책.....	5
1. 주요 좌파정권 국가의 경제정책 흐름.....	5
2.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6
3. 대외 교역 변화.....	7
III. 대응방안 및 시사점.....	11
[부록] 중남미 주요국가의 경제 정책.....	13

요 약

1.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

중남미 지역 좌파정권이 확산일로를 걷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중남미 좌파정부는 13개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에서 실시될 올해 대선에서도 좌파 득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은 첫째, 중남미 원주민들의 의식수준 및 교육수준 상승과 둘째,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 셋째, 경제 성장과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對 중남미 관계강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러한 내, 외부적 요건에 의해 중남미 각국은 지역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 중남미 좌파 정권의 모습은 실리추구형과 극좌파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 칠레와 같은 실리추구형은 시장경제체제는 유지하면서 분배정책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에 힘을 쓰고 있다. 그 반대로 베네수엘라와 볼리비아는 남미 경제독립을 부르짖으며 미국에 강력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많은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대가 미국에 대한 반감과 여론의 脫美요구에 의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과거 우파정권의 경제정책 실패, 늘어나는 실업자와 빈곤층, 지도층의 계속되는 부정부패가 국민들의 사회개혁 의지에 불을 지폈으며 이 모든 책임의 화살이 미국을 향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중남미 좌파정권의 확대는 중남미 각국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되어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개혁의지가 정확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어설픈 시장경제체제 도입은 미성숙한 중남미 시장에 독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주도로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신임을 잃었고 더 나아가 미국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최근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중심이 중동지역으로 이동하고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지속 축소되면서 그에 대한 중남미인들의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중남미인들의 경제독립에 대한 자신감은 지속되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여유에서 기인한다. 치솟는 원자재 수요와 가격 덕분에 중남미 자원생산국들의 경제는 급속도로 회복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거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미국 이외에 다양한 경제 파트너를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강력한 독자노선 추구의 원인 중 하나이다.

2. 좌파정권의 경제정책

중남미 국가의 경제정책 방향은 주로 국내경제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분배 및 복지정책에 좀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남미 각국의 빈부격차와 지역간 소득격차는 중남미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였다. 또한 외부간섭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관계 강화를 통해 경제를 이끌어나가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그동안 경제정책 운영에 부담이었던 IMF 외채를 전액 상환하였으며 이로서 나름대로의 경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울러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유명무실했던 메르코수르와 같은 중남미 경제 통합 계획이 급속한 경제회복과 함께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네수엘라가 메르코수르에 가입함으로써 실제 중남미 경제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국내 경제 정책의 변화에 따라 우선 중남미 내부적으로는 경제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빈부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비용 및 복지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외부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의 대 중남미 수출이 증가되고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동북아 3국 제품의 대 중남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 중남미 수출이 2004년 이후 계속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 중남미 진출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여타 중남미 국가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관계강화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 대응방안 및 시사점

중남미 경제정책은 대부분 국내경제 개혁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당분간 대외경제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지속적인 중남미 지역 동향 모니터링을 통한 정확한 시장 분석이 필요하며 우리 기업의 진출 방향 및 진출 여건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남미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우위 시장 발굴과 정부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참여 지원을 통해 중남미 관계 강화를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 중남미 좌파정권 확산

1. 현황 및 특징

가. 중남미 대선 동향 및 정세

좌파 정권 지속 확대

- 2000년대 들어 중남미, 카리브지역 좌파정권은 본격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여 현재 9개 국가에 좌파정권 집권 중임

<중남미 좌파 국가 현황>

No.	국가	출범일	대통령
1	베네수엘라	1998	우고 차베스
2	브라질	2003	룰라 다 실바
3	볼리비아	2006	에보 모랄레스
4	아르헨티나	2003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5	우루과이	2004	타바레 바스케스
6	칠레	2006	미첼레 바첼렛
7	코스타리카	2002	아벨 파체코
8	쿠바	1959	피델 카스트로
9	파나마	2004	마르틴 토리호스 에스피노

- 2006년 중남미 6개국에 대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좌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중남미 좌파정권 확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

<좌파정부 출범 예상 국가>

No.	국가	선거일	대통령
1	페루	2006	로데스 플로레스 (유력)
2	멕시코	2006	로페스 오브라도 (유력)
3	브라질	2006	룰라 다 실바, 호세 세를라 (경합)
4	에콰도르	2006	레온 톨도스 (우세)
5	니카라과	2006	다니엘 오르테가 (우세)
6	베네수엘라	2006	우고 차베스 (유력)

□ 원주민 영향력 확대

- 중남미 원주민들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중남미 국가들은 중남미만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
 - 과거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영향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해진 상황
- 정치, 경제 분야 모두 미국 의존적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국가와 다양한 관계 확립 요구

나. 중남미 내부 동향

□ 국제 영향력 강화 움직임

- 막대한 보유자원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남미 주요 산유국 및 자원 보유국 경제 회복에 호재로 작용
-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은 중남미가 세계 주요국의 新 원자재 공급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이에 따라 주요 중남미 국가들은 국제 사회에서 원자재를 통한 영향력 강화를 꾀하고 있음

□ 독자노선 확립 및 강화

-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독자노선 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
 - 베네수엘라의 경우 막대한 오일달러 유입에 따라 지역 내 각 국가에 다양한 원조를 약속하며 중남미 중심국가로의 발전을 꾀하고 있음
 - 브라질은 MERCOSUR 확대 통합을 통해 남미 경제 블록의 주축으로 발돋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기타 중남미 국가들 역시 과거 미국에 대한 의존보다는 중남미 국가 사이의 유대관계 강화와 교역관계 다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중남미 좌파정권 확대 배경

□ 중남미 민주주의 정착

- 과거 포퓰리즘 정치와 정치부정이 만연한 중남미 국가 내에 성숙한 민주주의 의식이 정착
- 중남미 국민들의 의식 향상과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변화 욕구가 정권교체로 표출

□ 우파정권의 시장경제정책 실패

- 8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적용된 新 자유주의 경제개혁은 당시 중남미 경제 상황 반영 미흡
- 그 결과 중남미 각국이 안고 있던 실업률, 빈곤층 문제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경상수지 적자 및 외채 증가 심화
 -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경제 개혁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중남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거부감을 갖기 시작
 - 또한 향후 경제발전은 의존적 형태가 아닌 자립적 경제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

□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만 증대

- 과거 친미성향이 강하던 중남미 지역에 반미 기류가 흐르는 원인은 미국 행정부의 일방주의와 중남미 홀대에 기인
 - 최근 미국의 대외정책 중심은 중동, 중국, 북한에 집중되어 있으며 과거 활발하게 진행되어오던 중남미 지원정책은 중단된 상태
-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보여준 일방외교와 국제규범 무시도 중남미인들의 미국에 대한 반감을 증폭시킨 계기
 -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찬성한 중남미 국가는 7개국에 그침

□ 경제 자립 의지 강화

- 최근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남미 국가는 재정적으로 여유를 갖기 시작함
-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은 과거 미국 의존적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및 수입선 다변화, 독립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기 시작

II. 좌파정권의 경제정책 및 영향

1. 경제정책

□ 국내 경제 개혁에 중점

- 중남미 좌파국가 대부분은 시장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개입이 강해지는 추세
- 과거 우파 정권의 성급한 시장개방으로 야기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 인프라 확충

- 중남미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던 전력, 도로, 항만, 철도와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해소 정책 마련 및 시행

- 인구의 도시집중화,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등 내부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인프라 강화에서 찾고자 함

□ 외부 간섭 배제

-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IMF 차관을 조기 상환함으로써 자국 경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최소화 함
- 또한 대미 의존도 완화를 위해 다양한 국가와의 교역관계 강화 추진

2. 경제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

□ 사회복지비용 확대

- 과거 소득불균형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배정책을 강화하고 빈곤층을 위한 사회복지비용 지출 확대
- 그러나 각종 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내 상호 협력관계 강화

- 각국의 지역 내 협력관계 강화 정책에 따라 자원협력 및 산업 교류가 활발해질 전망

-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자원연대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잇는 송유관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의 경우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시설 확충 사업에 참여하는 등 에너지 관련 협력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경제 통합 본격화

- 중남미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음에 따라 브라질과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경제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과거 지속되는 경제 불안으로 여러 번 중남미 경제공동체 구성이 실패로 끝남
 - 그러나 최근 경제 안정과 함께 메르코수르 확대는 큰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의 가입으로 인해 경제 통합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볼리바르 혁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남미 독자노선 확립을 추진하고 있음

3. 대외 교역 현황 및 전망

□ 대미 의존도 소폭 개선

- 무역다변화 및 교역관계 다변화에도 불구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대미 의존도는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음

- 주요 국가 수입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시장 또한 대미 의존적 구조 유지

□ 아시아 국가의 대 중남미 수출 증가

- 중남미 지역 국가의 무역거래 대미 의존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나 소폭 감소세 유지
- 중남미 각국의 무역거래 다변화와 아시아 국가의 전략적인 중남미 진출이 붐을 이루면서 아시아 제품의 점유율 및 수출 증가율 상승
- 3개국 수입시장에서 아시아 특히 한국과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 상승하는 반면 미국제품의 중남미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브라질 수입시장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점유율			증감율
		2003	2004	2005	-05/04-
	전체	100	100	100	17.2
1	미국	19.8	18.1	17.2	11.7
2	중남미	16.5	15.6	15.2	14.2
4	독일	8.7	8.1	8.4	21.1
5	중국	4.5	5.9	7.3	44.3
6	일본	5.22	4.57	4.63	18.7
10	한국	2.24	2.76	3.16	34.5

(자료: WTA)

<아르헨티나 수입시장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점유율			증감율
		2003	2004	2005	-05/04-
	전체	100	100	100	27.8
1	중남미	40.34	39.8	41.73	34.0
3	미국	16.16	15.1	13.94	18.0
4	중국	5.2	6.25	7.81	59.8
5	독일	5.55	4.87	4.54	19.3
7	일본	2.86	2.73	2.75	28.8
14	한국	1.53	1.37	1.45	34.7

(자료: WTA)

<베네수엘라 수입시장 현황>

(단위: 백만불, %)

순위	국가	점유율			증감율
		2003	2004	2005	-05/04-
	전체	100	100	100	52.6
1	중남미	28.25	32.75	32.73	52.5
2	미국	33.12	32.75	30.96	44.3
6	중국	1.87	2.76	4.36	141.3
7	일본	2.14	3.17	3.7	78.3
8	독일	4.36	3.42	3.13	39.6
13	한국	1.06	1.09	2.04	184

(자료: WTA)

□ 아시아 국가간 경쟁 본격화 가능성

○ 중남미 시장에서 한-중, 한-일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아시아 3개국(한,중,일)의 2005년도 對 중남미 3개국 수출액은 총 161억 3300만 불로 전년대비 42% 증가

- 특히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수출 증가는 2004년 이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또한 대만의 對 중남미 수출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對 중남미 진출 강화 전망

- 미국과 중남미 국가간의 거리감이 형성되면서 중국의 틈새 공략 및 이념적 공감대를 활용한 진출이 강화될 전망
 - 주로 베네수엘라, 브라질에 대한 중국의 지원 및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으며 산업관련 투자 협정도 체결
- 중국의 對 중남미 진출 강화는 자원 및 식량 공급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후진타오 총리의 중남미 순방에서도 이와 같은 협의가 이루어짐

□ 우리나라 기업 진출 확대 가능

-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미국 이외에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중남미 프로젝트 참가가 증가하고 있음
 - 최근 중국의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술력 및 경험부족으로 고전
 - 막대한 오일머니 유입으로 각종 신규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기업들의 진출확대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별적 관계강화와 협력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선되어야 함
- 또한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회원국 지위를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각종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 사업 참여를 지원해야 함

III. 대응방안 및 시사점

□ 美, 中의 對 중남미 정책 분석 및 동향정보 제공

- 좌파 정권 확대 기초 분석과 중남미 지역 내 美-中간 경쟁 상황 모니터링 필요
 - 좌파 세력이 지속 확대될 경우 미국정부의 對 중남미 정책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또한 중국의 경제, 군사적 지원 확대는 중남미 지역에서 중-미간 긴장상태를 초래할 수도 있음
- 이들의 정책변화가 우리나라의 對 중남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개발 프로젝트 참여 적극 지원

- 경쟁국의 프로젝트 사업 진출 현황 및 전략 분석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유망분야 및 전략 수립

- 주요국의 경쟁적인 對 중남미 진출 확대에 적절히 대응하고 신규 시장 선점을 통해 경쟁우위 확보
- 관련기관의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중남미 개발 프로젝트의 적극적인 對 기업 홍보와 정-경 협력으로 시장 진출 확대 지원

□ 진출 산업 특성화 전략으로 시장 확보

- 강대국 간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진출 전략의 키워드는 특성화가 되어야 함
 - 현재 우리나라의 중남미 시장 진출에는 대표 상품 또는 분야가 없는 상황
 - 중국제품에 상당부분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시장경쟁력 상실까지 우려되는 상황
- 경제 전체 분야를 포함하는 관계 확대 이외에 각국의 특정 유망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및 투자를 통해 관련 분야에서 국가 또는 기업이미지 확립이 바람직함

[부록] 중남미 주요국가의 경제정책

1. 베네수엘라

□ 외환 통제 시스템 가동

- 베네수엘라의 통상정책 중 무역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은 외환통제 시스템
 - 외환통제 시스템이 시행되면서 거의 모든 기업의 수출 및 수입이 정부의 모니터링을 받고 있으며 위반 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음
- 또한 이 시스템을 통해 불필요한 사치재, 소비재 수입 억제 가능성이 가능함에 따라 실제적으로 동 외환통제 시스템은 수출, 수입 통제 시스템임

□ 강제적 분배 정책

- 베네수엘라는 중남미 지역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성격이 강한 경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임
- 2001년 차베스 대통령이 시행한 반기업법을 시작으로 2005년 불법사유재산 압류 조치 등 헌법에 위배되는 정책도 시행되고 있는 상황
- 뿐만 아니라 대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토지 강제 분배 정책 시행을 통해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분배할 것을 지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

□ 노동자 위주의 입법 강화

- 2005년 9월 마감된 국회 특별 회기 중 근로자 환경개선 및 사고예방법이 통과되어 고용주의 부담 증가
- 법정 최저임금제도 최근 15%이상 상향 조정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
- 정부의 지나친 노동자 지원정책으로 기업들의 근로자 고용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음

2. 볼리비아

□ 빈곤 해소 정책 추진

- 중남미 최빈국인 볼리비아는 우선적으로 빈곤층 축소를 위한 사회비용 지출 확대에 경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
- 볼리비아 내수 부진은 두터운 빈곤층이 원인이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총체적인 경제 발전이 어려운 상황
- 이에 따라 사회비용 지출을 증가시키고 인디안 빈곤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 좌파 국가와의 경제 연대 강화

- 볼리비아 신정부는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중남미 대표 좌파정권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매월 15만배럴의 경유 지원 및 3천만 달러 원조를 약속하는 등 양국간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

- 브라질, 아르헨티나와의 연대 또한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연대강화를 통해 경제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으로 보임

□ 베네수엘라式 경제모델 적용

- 베네수엘라의 주요산업 국유화는 볼리비아의 경제발전 모델이며 실제로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원산업 국유화 추진
- 이에 따라 베네수엘라에 이어 볼리비아에서도 외국인 투자 기업 및 민간기업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볼리비아는 자본 및 기술이 부족함에 따라 베네수엘라와 같은 강력한 정책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3. 브라질

□ 親 시장정책 추진

- 남미 국가 중 가장 발달된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활발한 생산 활동을 통한 경제 발전에 초점을 둠
- 그러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규제 및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 인프라 강화 정책

- 지역별, 계층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프라 확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브라질은 인구의 도시집중화, 지역간 빈부격차 심화 등 내부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을 인프라 강화에서 찾고자 함

□ 사회복지 확대

- 소득 불균형 및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사회 복지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음
- 교육 및 보건 관련 정책 강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특히 의무교육제도 강화, 문맹자 퇴치 등을 적극 추진
- 궁극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격차를 줄임으로서 안정적인 성장기반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남미 경제 통합 주도

- 최근 브라질은 남미 국가간의 유대관계 강화 및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강화에 힘을 싣고 있는 상황
- 궁극적으로 남미 독립 경제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의 관계 강화 및 확대에 힘을 쏟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에 주력

4. 아르헨티나

□ 실업률, 인플레이션 안정화 정책

-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가격 안정화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
 - 2005년 아르헨티나의 물가상승률은 12.3%로 여전히 두 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안정화 대책으로 가격안정화협약을 주요 산업계 및 유통업계와 체결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의 직접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시기 조절이 실패할 경우 또다시 경제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주변 좌파국가와의 경제 연대 강화

- 키르치네르 대통령 취임이후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도 좌파적 모습을 보이기 시작
-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대표적 좌파 국가와의 관계강화에 치중하며 각종 협력사업 진행
 -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볼리비아로부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보장 받음

□ 외부 간섭 최소화

-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IMF가 아르헨티나의 독자적 경제 정책 추진을 위해 모든 IMF 채무를 상환하고 아르헨티나만의 경제정책을 시행하고자 함
- 실제로 IMF는 현재 키르치네르 대통령이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상반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아르헨티나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끼쳐왔음

작 성 자

◆ 성기주 책임연구원(해외조사팀)

- 중남미 좌파정권 경제정책 동향 및 시사점 -

발행인 : 홍기화

발행처 : KOTRA

인쇄처 : 학림사 02)752-0463

발행일 : 2006년 3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우 137-749)

전 화 : 02)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06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